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추승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0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추승우, 김 경, 김제리,
김희걸, 서윤기, 송명화,
이영실, 최 선, 홍성룡,
황인구 의원(10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 대중화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 인식 강화 및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제안이유

- 지식재산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시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대중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정책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2018년부터 매년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 7,229건으로 2019년 51만 968건에 비해 9.1% 증가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전년 대비 52.8% 증가한 2조64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가치 상승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식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알거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차원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을 비롯한 인재양성 준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바 있고, 의원연구단체인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설립하고 지식재산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지식재산 교육과 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을 선도한다는 의식 아래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및 지식재산 분야 인재양성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